'해외건설플랜트의날' 행사에서은탑산업훈장수상

정태화 (주)대우건설 부사장

"수주 전망 밝은 향후 5년이 해외건설 도약의 호기"

정태화 대우건설 부사장에게 올 11월은무척유쾌한달이었다. 11월첫날 정부에서 주는 훈장을 받은 데 이어 중순에는 카타르에서 공사비가 4,000억원에 달하는석유화학플랜트건설공사계약서에 직접 사인하였다. 개인적인 영예를 얻었을뿐만아니라회사에도커다란선물을 안긴셈이다.

정부훈장은해외건설 40주년을계기로 제정된 제1회 '해외건설 플랜트의 날' 행사에서받은은탑산업훈장이다. 이번행사에서 수여된 정부 포상 중에서는 가장 높은상이다. 지난 30년동안 해외건설에대한 열정과 안목을 가지고 나이지리아, 리비아, 사할린, 카타르등미개척플랜트시장을개척해해외플랜트시장에서우리나라 업체의 위상 제고와 국위 선양에 공헌한노고를인정받은것이다.

"저혼자받은상이라기보다는그동안열사의땅에서, 그리고열대밀림에서회사발전을 위해묵묵히노력해 온직원들이받은상이라 생각합니다. 1979년 해외 현장으로 발령받아 처음 나갔을 때는 선진 기업보다 기술도많이뒤지고공사 관리도어설퍼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해외의 선진 업체와 떳떳하게 경쟁할 정도로 모든 면에서 우리의 역량이 높아졌습니다. 모두가 희생을 감수하면서 흘린 땀의 결실이지요."

정태화부사장은 현재 해외사업본부장으로서 해외 플랜트 · 토목 · 건축 분야 등의 해외사업전체를총괄하고있다. 건설분야 30년경력의노하우를해외사업진두지휘에쏟고있다. 특히, 그는선택과집중의전략으로LNG 프로젝트를특화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이는선진 외국 건설업체와의 경쟁 속에서 대우건설이 대형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공사를연속적으로수주하는요인이되고있다.

정태화 부사장이 그동안 수주한 주요 공사로는우선대형LNG 가스트레인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입증한 나이지리아 보니섬 LNG 가스 트레인 5 · 6호기와가스 플랜트 건설 기술과 노하우를 세계 시장에서 확실하게 인정받은 리비아 WAFA 가스 플랜트 공사를꼽을수있다. 러시아사할린II LNG 플랜트, 예멘LNG 탱크프로젝트도그의손을거쳐수주에이른대형공사들이다.

그의해외사업전략은수주에만그치지 않는다. 수주한 EPC 공사의 성공적인 수행을통해해외발주자로부터인정받는것을 강조하고 있다. 기업의 인지도는 물론 국가의 위상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는 프로젝트 수행에 W-PMS, DW-OCIMS 등효과적인사업관리 기법을 도입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회사의 노하우가 축적된 사업관리 기법들을 해외현장에적용한결과공기단축, 품질, 환경, 안전, 납기 등에서 해외 발주자로부터 상당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의 해외 사업 역량이 더욱 강화되는 것 역시 적잖은성과라할수있지요."

정태화 부사장은 향후 5년 동안 해외건설 수주 전망이 밝을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 오일 달러 강세로 대형 EPC 공사의발주물량이늘어날것으로전망하였다. 다만, 해외건설수주전망이마냥 좋지만은 않을 것이므로 수주 물량이 확보되는향후5년이해외건설의새로운도약을 가름하는시기가될것으로내다보았다.

"지금의해외건설활황은중동요인에힘입은바크지만외환위기이후우리업체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5년 동안 준비를 잘해야만 힘든 시기가 와도안정적인해외사업물량을 확보해나갈 수있을것입니다."

이형우 · 기자 · hwlee@cerik.re.kr